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23/1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~38 풀이시간 :
 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

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(山) 넘어 큰 산(山) 그 넘었 산(山)
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.

우뚝 솟은 산(山), 묵중히 엮드린 산(山), 골골이 장송(長松)
 들어섰고, 머루 다랫넝쿨 바위 영서리에 얽혔고, 살살이 떡갈
 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, 여우, 사슴, 산(山)토끼, 오소리,
 도마뱀, 능구리 등(等),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,

산(山), 산(山), 산(山)들! 누거만년(累巨萬年) 너희들 침묵
 (沈默)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,

산(山)이여!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, 엮드린 마루에, 확
 확 치밀어 오를 화염(火焰)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?

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
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?
 - 박두진, 「향현(香峴)」 -

(나)

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
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.
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
 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.

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
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
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.
 아아, 아직 처녀인
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.

그러나 지금 우리는
 불로 만나려 한다.
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
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

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
 저 불 지난 뒤에
 흐르는 물로 만나자.
 ㉡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
 올 때는 인적 그친
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.

- 강은교, 「우리가 물이 되어」 -

(다)

㉢ 눈은 따뜻하다.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
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. 작은 산 너머
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

온도를 체험케 한다. 눈이,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, 잊고 있던
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
 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
 느낀다.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
 받고 싶은 것이다.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
 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
 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.

눈은 조용하다.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
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
 고요하게 한다.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
 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.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
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
 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.

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.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.
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
 갖게 한다.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, 우리는 우리 자신을
 새삼 의식하게 되고,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
 견하고 생각하게 된다. 나의 삶, 나의 위치, 우리와 자연의 관계
 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
 는 것이다.

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.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, 혼자
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
 어가지지 않는다.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
 아니다.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. 이런 밤 누가
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.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
 는가.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. 사색이
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. 눈이 쌓이는 깊은 밤
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, 책상 위에 밝혀
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.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
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.

- 박이문, 「눈」 -

34.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② (나)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.
- ③ (가)와 (나)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
 표출하고 있다.
- ④ (가)와 (다)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
 러내고 있다.
- ⑤ (나)와 (다)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
 조성하고 있다.

35. (가), (나)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산이 ‘누거만년’ 동안 ‘침묵’하고 있는 것을 ‘지리함즉 하’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.
- ② (가)의 ‘내 기다려도 좋으랴’와 관련하여 볼 때 ‘화염’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.
- ③ (나)에서 ‘만나다면’, ‘좋아하지 않으랴’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.
- ④ (가)의 ‘내 마음’이 ‘둥둥 구름을 타’는 것은 ‘큰 산’, ‘그 넘었산’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, (나)의 ‘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’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.
- ⑤ (가)의 ‘핏내를 잊은~즐거이 뛰는 날’은 평화로운 세계를, (나)의 ‘넓고 깨끗한 하늘’은 화자가 ‘그대’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
36. ㉠과 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은 물의 결빙감을, ㉡은 불의 증축감을 비유한다.
- ② ㉠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, ㉡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.
- ③ ㉠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, ㉡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.
- ④ ㉠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, ㉡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.
- ⑤ ㉠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, ㉡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.

37. (다)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글쓴이는 ‘온 세상’이 ‘깊은 고요’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.
- ② 글쓴이는 ‘눈이 쌓이는 깊은 밤’에 ‘서재’에 앉아 ‘철학가’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.
-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‘눈이 쌓이는 밤’에 체험하는 ‘고독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.
- ④ 글쓴이는 ‘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’에 ‘사무적인 일이나 공부’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.
- ⑤ 글쓴이는 ‘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’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‘단절’된 ‘이웃’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.

38. (다)를 바탕으로 <보기>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————— <보 기> —————

㉠은 ㉡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‘따뜻하다’를 사용하여 ‘눈’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그 정서는 글쓴이가 ㉢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㉡과 ㉢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.

- ① 현재는 없다.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.
-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.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.
- ③ 시간은 모순이다.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,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.
- ④ 지식은 차갑다.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.
-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.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.